

2008람사총회와 우포늪 보전운동의 새로운 시도¹⁾

이 인 식²⁾

마창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머리글

최근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열린 제9차 람사총회에서 ‘2008람사총회’를 대한민국 경남에서 열기로 결정하였다. 이렇게 경남에서 제10차 회의가 열리게 된 계기는 지난 15년 동안 우포늪보전운동을 출발점으로 하여 전국의 습지보전운동을 주도해온 마산창원환경연합과 전국습지보전연대회의 등의 성과물이기도 하다. 덧붙여 민간환경단체의 제안을 경상남도가 적극 받아들이고, 환경부가 함께 노력한 민·관 협력의 모범사례이기도 하다. 2008년 국제습지보전 협약인 ‘람사총회’를 유치한 동력원인 우포늪의 생태계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한 사회적 합의 구조가 필요하다. 나아가 한국의 새만금과 낙동강하구 같은 파괴 행위가 더 이상 없도록 습지보전 정책의 제도화와 습지보전에 대한 국민인식 증진 프로그램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우포늪의 보전과정

지난 97년, 우포늪(소벌)은 자연생태계보전지역으로, 98년 8월에는 ‘람사협약’에 의하여 국제적으로 보전되어야 할 습지로 지

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7여년 간에 걸친 마산창원환경운동연합과 주민, 환경부의 공동 노력으로 가능했다. 우포늪은 국제적으로 보호되는 국내 최대의 자연늪이다.

경남 창녕군 대합면과 이방면, 유어면 대대리, 세진리에 걸쳐있는 70만평의 낙동강 배후 습지이다.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광활한 늪지에는 수많은 물풀들과 어류, 곤충, 조류들이 서식하는 곳이다.

멸종위기종인 가시연꽃을 비롯하여 생이가래, 부들, 줄, 갈대, 골풀 등 400여종이고, 조류는 논병아리, 쇠백로, 중대백로, 왜가리, 큰고니, 청둥오리 등 62종에 이른다.

어류와 수서곤충류도 뱀장어, 피라미, 잉어, 붕어, 메기, 가물치 등 28종과 연못하루살이, 왕잠자리, 장구애비, 소금쟁이 등 55종, 너구리 등 포유류 12종과 파충류 7종, 양서류 5종, 폐각류인 물달팽이 5종 등이 어머니의 품인 늪속에 살고 있다.

특히 조류의 경우에는 천연기념물인 황새, 흑두루미, 고니, 개리, 노랑부리저어새, 흰꼬리수리, 물수리, 황조롱이, 잿빛개구리매 등과 매년 5천여 개체가 겨울을 나는 기러기류를 탐조하는 것은 가히 장관이다. 물속식물인 부들, 창포, 갈대, 줄, 올방개, 붕어마

1)2008 RamsrCOP10 & New Start, Movement for Woopo Wetland Conservation

2)LEE, In Sik, Korea Federation for Environmental Movement in Masan-Changwon, Korea.

E-mail: woopolee@chol.com

름, 벚꽃, 연꽃 등이 무더기로 자라고 있다.

늪에 반쯤 밑둥이를 담그고 있는 왕버들군락과 많은 종류의 나무들이 ‘원시’의 분위기를 자아낸다. 개발이란 미명아래 국내 많은 늪은 사라지고 이제 늪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곳은 국내 한 곳. 바로 우포늪뿐이다.

우포늪을 보전지구 지정에 따른 공청회 당시만 해도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가 올 것이라는 이유로 격렬한 반대가 있어서 습지보전운동 단체는 어려움이 대단했다.

그러나 2001년 초겨울 바람결에 ‘2008년 국제 랍사회의를 우포늪에서’라는 슬로건을 솟대처럼 높게 세우기로 하였다. 지금은 지자체와 민간환경단체들이 앞장서서 정부를 설득하여 우포늪이 있는 경남에 국제회의를 유치하는 하기로 했다. 이미 알려진 대로 우포늪은 147개국 정부가 랍사협약에 의거 ‘국제적으로 보전해야할 중요한 습지목록’에 올라가 있는 국제적인 자연유산이다. 그리고 ‘랍사총회’는 서울이나 부산 같은 큰 도시도 가능하지만, 외국의 개최도시를 보면 일본의 구시로, 호주의 브리즈번, 코스타리카의 산호세 등 다양한 지역이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낙동강 변의 중요한 습지가 있는 우포늪에 2008년 랍사총회를 유치한 것은 습지보전운동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될 것이다.

우포늪의 심미안적 가치

현대의 대다수 도시인들은 물가에 사는 식물이나 동물을 볼 기회가 잘 없다.

간혹 인공적인 연못가나 조그마한 저수지 근처에서 휴식 시간을 가진다 해도 연꽃, 수련, 갈대 같은 물위에 떠 있거나, 물가에 무리지어 자라는 몇 종류의 수초들을 잠깐 스치듯이 쳐다보고 말뿐이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연못이나 자연늪에는 물속식물들이 물가에서부터 뿌리나 줄기의 일부가 물속에 있

고 나머지 대부분은 수면 위에 나와 있는 추수식물들(갈대, 줄, 개연꽃, 노랑어리 연꽃, 수련, 연꽃, 세모고랭이, 부들 등)로 많은 종이 있다.

다음으로 부엽식물이라 불리는 물 밑바닥에 뿌리나 땅속줄기가 있고 가늘고 긴 잎자루 또는 줄기로 수면에 잎을 띄우고 있는 개구리밥과 마름 등이 있다.

우리 부모님 세대는 마름의 열매 말밤(물에서 나는 밤)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있다. 황소빨 같이 생긴 말밤을 칼로 두 쪽을 내어 마치 잘 익은 알밤처럼 혹은 속 좋은 고구마를 먹는 것처럼 속을 파먹었던 어릴 적 기억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뿌리, 줄기, 잎 등 식물체 전체가 물속에서 생육하는 식물군으로 꽃을 피울 때는 물위로 떠오르므로 자세히 보면 그 존재를 알 수 있다.

우리에게 친숙하지 않은 이름이지만 붕어마름, 나사말 등이 있다. 이렇듯 연못이나 자연늪의 수생식물은 물가에서부터 추수성식물-부엽성식물-침수성식물 등으로 대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살아있는 자연사 박물관 역할을 자연늪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른 봄 물안개 사이로 겨울철새들이 분주하다.

곧 시베리아 쪽으로 먼길을 떠나야 한다. 겨우내 따뜻한 남쪽 나라에서 풍부한 먹이와 휴식을 취하고, 이제 산란지로 향하는 시간이다. 이렇게 우포늪의 봄은 시작된다.

3월 중순까지 마지막 겨울철새들이 머물고, 온몸이 까만색에 눈부시게 흰 부리를 가진 물닭들만이 남았다. 물닭마저도 떠나고 나면 이제 우포늪에는 내버들 군락들이 연초록빛의 생명을 탄생시킨다.

우포늪으로 흘러드는 도평천에는 물속식물인 붕어마름과 말즘이 길게 뿌리와 줄기를

뺨어내린다. 이곳은 작은 물고기들과 물달팽이, 논우렁이 등의 산란장이 되고, 먹이 창고가 된다.

여름철새가 봄이 탄생시킨 생명들을 먹이로 쭉쭉 자란다.

왜가리와 중대백로는 벌써 어린 새끼들을 돌보느라고 정신이 없다. 우포늪 거의 야산에 등지를 튼 수 백 마리의 여름철새들이 숲숲과 늪을 오가며 개구리와 물고기를 잡아 자식들을 키워 가는 것이다.

이때쯤이면 우포늪의 자랑거리인 가시연꽃의 작은 잎들이 물위에 고개를 조심스럽게 내민다. 제법 키가 자란 줄풀과 창포줄기 사이로 논병아리와 흰뺨검둥오리들이 자식사랑에 재미를 붙였다.

장대 같은 여름비가 시작될 즈음이면 모든 여름철새들은 튼튼한 집짓기를 한다.

그리고 잘 자란 수초들도 살아남기 위하여 겁먹은 표정으로 무리들과 함께 속삭인다. “애들아, 긴 장마에 몸조심들하고, 논병아리와 물자라를 비롯한 곤충들의 튼튼한 방패막이 집들이 되어 우리들의 보금자리인 이 늪을 잘 지키자”고 다짐하며 긴 여름살이로 들어간다.

늦은 여름, 우포늪가의 주민들은 논우렁이와 붕어잡이로 분주한 때이다.

도시에서 온 아이들도 늪 속에서 왜가리 선생님과 생물들을 관찰하고 있다.

가장 자연스럽게 학습을 할 수 있는 코스는 우포늪 가를 따라 2km 정도 걸으면서 중요한 관찰지점마다 멈추어 선다.

곧 늪의 냄새와 새소리, 식물들을 만져보고 맛도 보면서 관찰한다. 간혹 물 속에서 질펀 질펀한 펄을 밟으며 부드러움을 느끼면서 물방개나 게아재비, 물자라를 채집하며 기뻐하는 시간이다.

가을은 은백색의 물억새 물결로부터

노을이 지는 가을, 우포늪에는 물억새와 갈대 그리고 버드나무 군락사이로 붉은 노을이 내리고 새들은 비상한다.

이 아름다움은 감히 인간의 영역이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자연의 영역이 자신이 만든 생명의 경이를 보여주는 시간이다.

10월부터 날아들기 시작한 알락오리와 청둥오리, 기러기떼 등 겨울철새떼들이 흥시감처럼 빨간 가을 수초들 사이에 깃들어 부지런히 먹이를 뜯고 있다.

가끔 어둠이 내리면 낮 동안 늪에서 쉬던 가창오리떼가 바람소리를 내며 밤 비행을 한다.

한편 우포늪의 가을은 새들의 먹이가 되는 수초들과 작은 물고기들이 죽음을 준비하는 철이기도 하다.

그리고 최근에는 봄·가을 정기적으로 호주와 시베리아로 이동하면서 우포늪에 잠시 머무는 장다리물떼새 15마리를 2001년 처음 발견하고는 기록을 남겨 두었다. 매우 드물게 볼 수 있는 나그네 새로 얇은 물에서 먹이를 찾아 조용히 걸어다니며, 유난히 붉은색의 긴 다리를 가진 매혹적인 새다.

마침 우리아이들과 함께 봄·가을 이동하는 도요물떼새를 탐조하다가 운 좋게 장다리물떼새의 아름다운 모습을 본 것이다. 이처럼 우포늪은 나날이 새로운 자연의 경이로움을 보여주면서 인간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고 있다.

우포늪의 침묵. 겨울

모든 생명이 겨울잠에 들어간다.

가시연은 펄 속에 열매로 긴 잠을 자고, 붕어를 비롯한 어류들도 질펀한 늪 속에서 숨죽이며 겨울을 난다. 심지어 늪의 왕성한 포식자인 외래종 황소개구리와 올챙이조차도 활동이 정지된다.

그러나 부지런한 어부들은 겨울잠을 자는

것들을 손으로 더듬어 잡아 올린다. 그러면 서도 늘 사시사철 살아있는 조류들은 아침, 저녁으로 비상하면서 날개짓을 하고, 여름 수초가 남긴 풀뿌리와 줄기를 뜯어먹고, 한 낮에는 따뜻한 햇살을 받으며 휴식을 취한다.

간혹 기러기떼와 오리떼들이 먹이를 놓고 다투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 “새들은 서로 먹이를 다투지 않는다” 그것은 늙가의 생물상이 다양하고, 먹이가 풍부하기 때문이다.

이 때쯤이면 겨울방학이 되고 우포늪에서는 ‘습지와 새들의 친구’를 비롯한 환경단체들이 ‘겨울철새탐조학교’를 개최한다.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새들의 즐거운 비명의 소리가 어울려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것이다.

우포늪보전 위기에 대한 대응

2004년, 습지보호지역이자, 생태계보전지역인 람사습지 우포늪에서 몇 달째 토목공사-지난 2003년 9월 태풍 매미로 말미암은 수해복구공사-가 한창이었다. 하지만 이 공사는 자연늪인 우포늪 곳곳에 제방을 쌓아 원형을 크게 파괴하고 일반 공사에서도 피하는 추세인 시멘트 호안블럭을 제방사면에 바르는 등 우포늪의 생태적 특성과 가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아 환경단체와 창녕군 간에 갈등이 고조되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모든 사업이 3개월 동안이나 불법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습지보전법 및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습지보호지역이나 생태계보전지역에서 생태계를 훼손할 수 있는 토목공사를 할 때에는 환경부로부터 행위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창녕군은 주민민원을 핑계로 공정의 65%가 진행될 때까지 행위허가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동강생태계보전지역에서도 우포늪에서와 같은 방식으로 지자체의 일방적인 공사가 이

루어졌고, 원주지방환경관리청은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못하다가, 언론과 학계, 시민단체 등이 계속하여 문제를 제기하자 그때서야 공사중지명령을 내리는 등 사태수습에 나선 일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런데 우포늪 수해복구공사 과정에서도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주민민원과 지자체의 요구에 머뭇거렸다. 더구나 창녕군의 수해복구공사가 우포늪에 미칠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우포늪의 지속가능한 보전과 관리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법의 선택권을 창녕군에게 넘겨 자신의 책임을 포기함으로써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특히 건교부의 현장조사가 진행 중임에도 지난 5월 11일 공법선택 결정을 창녕군에게 넘긴 것은 행위허가와 관련하여 창녕군과 모종의 담합을 한 것이 아닌지 하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었다. 이후 환경단체는 다음과 같은 권고문을 내기에 이르렀다.

1)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은 창녕군의 수해복구공사에 관한 2004년 5월 11일자 행위허가결정을 철회하고, 이 사태와 관련하여 안전과 생태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공사 허가여부와 공법을 재결정하라.

2) 창녕군은 우포늪의 보전가치를 인식하고 또 각계의 우려를 고려하여, 우포늪 연접구간인 800m에 대한 시멘트 호안 블록식 수해복구공사를 즉각 중단하고 낙동강유역환경관리청의 결정에 따라라.

3) 환경부는 습지보전법 및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위임된 우포늪 보전 책무를 망기한 낙동강유역환경청장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근본적인 보전대책을 수립하라.

이후,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환경부와 건교부가 협력하여 정부에서 파견한 전문가들의 결정으로 호안블록을 걷어내고 우포늪 본래의 모습을 견지하게 되었다.

2008람사총회와 우포늪의 생태적 활용

주민들의 삶과 자연 그리고 생태자원의 활용

결국 마을이 주민의 삶의 질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주민의 몫이기 때문에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라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결국 이 말은, 주민이 살고 있는 지역의 디자인이라는 것은 주민의 사유재산하고 많이 연관되기 때문에 공공선에 대한 의식이 부족하고 개인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려 하는 시도가 많다. 그리고 주민협정 같은 부분이 일본과 독일은 계획이 마을단위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주민이 만들고 전문가와 공무원들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주민참여형 지역계획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 실정이 아직 이러한 단계로 나아가기는 주민들의 기본적인 지역디자인에 대한 관점(건물, 토지 등)의 전환이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 주민참여를 위한 교육, 주민연대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 따라서 아무리 우포습지가 호주의 분들습지(92년 올림픽을 반납하고 지킨 자연유산)나 영국의 슬림브리지처럼 아름답고, 유명한 생태관광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고 해도, 우포늪 주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참여와 인식 전환을 위한 프로그램의 마련이 필요하다. 덧붙여 지방정부의 강한 의지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그림속의 떡'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다.

실제로 낙동강변의 배후습지는 오랫동안 농경지와 주택지로 활용하기 위하여 습지가 줄어들면서 홍수피해가 늘어났다. 이제는 홍수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습침수지역을 포함한 과거 습지였던 농경지를 매입하여 생물서식처와 홍수 방어용터로 이용하고, 홍수기가 아닐 때에는 친환경적인 농산물을 재배하여 지역주민들이 판매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해

야 한다. 그리고 어업행위에 대한 적절한 주민교육과 관리 계획을 통한 생산, 유통 및 판매까지 행정의 주민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습지는 절종된 생물과 멸종위기종의 복원대상지역이다. 이를테면 황새, 따오기 등의 야생동물을 복원하여 텃새화함으로써 종 보존과 생태자원으로 활용하면서 주민들이 참여하여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덧붙여 유용한 생물자원을 마을 주변 대체 습지에서 육종하여 주민소득 증대와 주민들이 관리하는 대체습지는 우포늪의 생물자원을 간접 체험할 수 있는 생태관광객 안내와 체험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한다. 마을 안에서는 우포늪과 주변에서 재료를 구하는 전통음식 제공과 우포늪과 연관된 상품을 판매하여 우포늪 보전과 주민들의 경제활동을 연계하도록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과거 쓰레기 매립장을 비롯한 환경 파괴 지역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후, 그 장소에 교육적 기능을 가진 은폐관찰소 등을 세우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 주민, 환경단체, 행정이 공동운영하는 주민교육, 청소년교육, 해설가교육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보전지역 야간 감시 등 모니터링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공동체가 힘을 모아 낙동강가의 모래톱과 습지, 강과 해안변의 숲을 가꾸고 복원하는 일로 주민의 삶의 질이 높아지도록 정책생산을 해야 할 것이다.

생물종 다양성 복원을 위한 노력

1) 재두루미의 서식 공간 확보 노력

"우포늪은 멸종위기종인 두루미 서식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함으로써 멸종위기종의 복원에 기여해야 한다."

지난 4월 26일, 낙동강유역습지에서 대부분 사라진 두루미복원에 오랜 세월을 마쳐 온 박희천 교수의 말이다. 이 것은 우포늪의

낙동강유역습지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이다. 우포늪이 사실상 100마리 이상의 두루미가 서식할 수 있는 지리적 조건을 갖춘 지역이며, 이같은 자연적 조건을 회복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2) 따오기 복원 사업

지난 2004년과 2005년에 걸쳐 따오기가 서식하고 있는 중국 서안의 양현마을을 민간환경단체와 조류전문가들이 방문한 적이 있다. 그리고 2008년 랍사협약총회 경남 유치에 의해 경남도와 마창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경남도의회 상황실에서 ‘멸종위기조류 복원을 통한 우포늪 관리방안’이란 주제의 국제워크숍도 가졌다. 당시 지역 신문의 기사를 옮겨본다(2005. 경남도민일보).

이날 황새전문가인 한국교원대 김수일 교수는 ‘멸종위기조류와 한국의 습지’라는 기초 강연을 통해 “창녕 우포늪이 멸종위기종 서식지로 가장 적합하게 마련될 경우 황새와 따오기 등이 복원될 수 있고, 이는 결국 랍사총회 경남 유치로까지 이어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어떤 형태가 가장 적합할지 정밀 연구 등을 거쳐 지속적인 유지·보존·관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멸종위기종 복원은 상징적 의미 뿐만 아니라 퇴색돼 가는 환경에 대한 국민 정신을 회복하고 국제적으로도 습지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기관 차원의 노력과 함께 지역 주민들의 이해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류보호 국제위원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말콤 클라크 콜더 박사 역시 “우포늪은 황새 등 멸종위기종 복원에 매우 적합한 장소인 것 같다”며 “복원이 이뤄질 경우 외국에서 이를 보기 위해 한국을 찾는 사례가 빈번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따오기 전문가인 시용메이 박사도 중국의

따오기 서식지 보존과 복원사례 발표 등을 통해 ‘한국 우포늪 따오기 복원 청사진’을 제시했다.

1900년대 초까지만 해도 흔한 텃새였던 황새는 지난 1971년 4월 충북 음성군에서 1쌍이 발견됐지만 발견 후 3일만에 수컷이 밀렵꾼에 의해 사살됐고, 암컷(과부황새) 또한 혼자 23년을 더 살다가 죽음으로써 텃새 황새는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아직 지구상(러시아, 중국)에 700여 쌍 남아 있는 황새 중 일부가 겨울철 우리나라를 몇 마리씩 찾아오고 있다.

따오기를 우포늪(소벌)에서 다시 볼 수 있게 하려는 창녕군과 마창환경운동연합의 공동 노력이 성공적인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들이 8일부터 12일까지 따오기 복원의 본산인 중국을 방문해 보호구 관계자들과 만나 ‘따오기가 한국 하늘을 날아다닐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는 다짐을 받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 현지 따오기 서식지의 자연 조건이 창녕 우포늪(소벌) 일대와 비슷할 뿐 아니라 어떤 면에서는 우포늪(소벌)이 더 나은 구석도 있다는 사실까지 확인하고 돌아왔다.

산시성 임업청 순칭기안 부청장은 8일 “81년 2만km를 찾아다닌 끝에 양시엔현에서 따오기 7마리를 발견해 95년 인공 번식에 들어갈 수 있었다”며 “현재 700여 마리가 있는데 국가 차원 절차는 거쳐야겠지만 임업청은 한국에 보내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순 부청장은 이날 산시성 시안시 임업청 7층 회의실에서 창녕군 정진수 기획감사실장과 마창환경운동연합 이인식 상임 의장 등 중국 따오기 서식지 방문단을 맞이했다.

그는 이어서 “중국의 따오기는 멸종 위기는 벗어났다”며 “99년 일본에 따오기 한 쌍을 보낸 것처럼 따오기의 우포늪 복원은 생

태계 회복뿐 아니라 한·중 두 나라의 우호·협력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튿날인 9일 밤 방문단을 만난 산시따오기보호관찰센터 덩화이화 소장도 “따오기의 보호와 복원을 위해 양시엔현까지 온 데 대해 열렬히 환영하고 한국 우포늪(소벌)에서도 따오기가 사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방문단은 9일과 10일 양시엔현 일대 서식지를 둘러봤는데 안내를 맡은 시용메이 항조우대학교 교수와 따오기 보호구 장야오밍 업무과장은 “따오기는 친해지면 크게 경계하지 않으며 서식지도 물가와 저수지 아니면 마을 동산”이라고 소개했다.

시 교수와 장 과장은 “따오기를 복원하기 위해 지역 주민에게 농약을 쓰지 말게 하고 겨울에 휴경시키는 대신 보상을 했다”며 “최근 10년 안에는 주민들이 따오기를 해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세계적 희귀새를 보호한다는 자부심을 갖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일행으로 함께 한 국립환경과학원 박진영 박사는 “처음에는 서식 조건이 특별해 한국에서 못 갖출 정도면 어쩌나 걱정스러웠다”며 “하지만 내와 논과 연못과 뒷산이 있는 한국 보통 시골과 비슷해 ‘언젠가는’ 되살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했다.

이인식 의장도 “이번 방문으로 우포늪(소벌) 일대가 따오기 복원에 딱 알맞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며 “주민과 자치단체, NGO가 힘을 모으면 적절한 보상과 친환경 농업으로 따오기도 살리면서 모두에게 득이 되는 방안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단장 정 실장은 “최고 결정권자가 아니라 잘라 말할 수는 없지만 (따오기 복원의) 필요성은 확인했다고 본다”며 “의회 논의와 집행부 방침 마련을 거쳐 주민들과 합의하는 등 꾸준하게 추진할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방문은 이인식 의장이 김종규 창녕군수에게 “따오기를 우포늪(소벌)에 되살리

면 청정 지역 창녕의 국제적 이미지 제고뿐만 아니라 창녕을 비롯한 경남 일대에서 개최될 것이 확실한 2008년 람사 총회를 성과를 높이는 데도 아주 유익하다”고 제의해 이뤄졌다.

건교부의 천변저류지 확보 방안

지난 2005년 2월 2일 습지의 날, 환경부가 주관하는 습지의 날 기념식과 기념 심포지엄이 창녕 부곡에서 열렸다. 수도권을 제외하고 최초로 지방에서 열린 이 기념식과 심포지움에 최초로 건교부가 참여하였다. 이날 발제자로 참가한 건설교통부의 하천계획과장은 발제에 앞서, 환경관련 기념 토론회에 건설교통부가 발제자로 참여한 것은 처음이며 때문에 스스로 영광스러움과 동시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게 된다고 하였다.

사실 그동안 건설교통부와 환경단체는 매우 적대적 관계였다. 아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건교부의 사업과 생태보전의 문제는 거의 100% 대치되는 국면에서 있었다.

하천문제만 해도 그렇다. 이수적인 측면에서의 하천의 기능을 토목적인 방법으로만 접근한 건교부에 의해 대부분의 하천은 콘크리트로 직강화 되는, 어떤 생물도 숨 쉴 수 없는 거대한 하수도로 변해갔다. 나아가 홍수를 적극적으로 제어하는 방법을 하천의 제방을 산같이 쌓는 토목사업으로 단순화시켜 하천의 폭은 점점 더 좁아지고 하천은 거대한 담안에 갇힌 홀로 동떨어진 세계가 되어 버렸다.

그런데 최근 건설교통부와 환경은 바로 하천문제에서부터 일부분 서로의 거리를 좁히기 시작했다. 하천을 직강화하고, 제방을 높여 홍수를 해결하는 방식이 한계에 다다른 것을 인식, 하천주변의 저류지를 홍수터로 되돌려주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것이다.

낙동강 하류에 속한 경남은 특히 홍수에

취약하여 점점 규모가 커지는 홍수피해를 입고 있는 곳이다. 낙동강은 그 하상이 완만하여 물이 빠르게 빠져나가기에는 어려운 지형을 갖추고 있고 때문에 낙동강하류 유역에는 풍부한 배후습지가 발달하여 홍수를 담은 물그릇 역할을 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전국, 특히 낙동강유역에 집중된 산업화와 더불어 홍수터로서의 역할을 하던 습지들이 매립되어 버리고 낙동강하구는 하구언이 건설되어 낙동강상류에서부터 높은 제방과 직강화되고 좁아진 하천폭을 타고 내려온 낙동강의 홍수는 하류에 이르러 과부하 현상을 일으키고 만다. 그리하여 해마다 낙동강하류에선 홍수가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문제의 인식에서 건교부는 낙동강종합치수계획을 세우면서 낙동강유역 습지를 이용한 홍수조절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천변저류지의 도입이다. 낙동강유역 습지를 복원하여 홍수터를 만들어 주는 것이다. 낙동강종합치수계획의 최우선 사업으로 고려되고 있는 이러한 생태적인 치수계획은 안타깝게도 아직 지방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 지방에서는 여전히 하천에 대한 토목공사가 행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2008람사총회의 개최지로 경남이 확정되면서 습지에 대한 선진적인 정책들이 지역에서 실현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치수정책의 변화-하천유역의 복원

사실 그 첫 번째 시도는 이미 시작되었다. 앞서도 언급된 올해 2월 2일 습지의 날에 건설교통부가 참여하여 천변저류지를 중심으로 한 치수정책의 전환을 구체적으로 천명한 것이다. 천변저류지란 지난 세기 하천유역이 개발되면서 농경지로 개간된, 그리고 상습적인 침수지역이 된 곳을 다시 하천으

로 되돌려 홍수터로 조성한다는 것이다. 하천의 본래기능을 회복시키겠다는 이러한 선언이 습지의 날, 창녕에서 행해진 것은 몇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데, 우선 치수의 대상인 하천이 하나의 습지생태계라는 것을 건교부도 인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토목공사 일변도의 치수정책의 전환이 지역에서도 행해질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며, 이러한 가능성이 ‘2008람사총회’ 유치운동을 통해서 언급되었다는 것이다.

마무리글

마지막으로 2008람사총회가 산지습지, 내륙습지, 연안습지가 고루 분포하는 경상남도에서 개최되면서 우선, 낙동강유역의 연안과 내륙을 이어주는 습지생태벨트를 제대로 구축하여 당면한 명지대교건설문제와 낙동강하구댐 문제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실천행동을 마련하고자 한다. 더불어 기존의 1920년대 초, 상태의 습지를 복원하고, 범람으로부터의 새로운 대안 마련과 생물종복원과 습지농경문화의 회복 등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한국의 분단 상황과 아시아의 과거 불행한 역사 그리고 잘 보전된 DMZ 및 남북 접경지역 연안 습지를 핵심적 상징으로 활용하여 남북이 공동으로 조사하고, 평화통일에 기여하는 방안으로 ‘습지와 평화’를 총회슬로건으로 하는 것도 좋겠다. 우포늪을 비롯한 경남의 자연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생태문화관광 기반조성을 만들어 가는 것도 중요한 과제이다. 습지를 이용한 생활오폐수 처리기술의 전국화로 새로운 환경산업. 즉 에너지와 비용이 절감되는 습지를 이용한 농어촌의 오폐수를 처리하는 기술 확보로 향후 중요한 산업기반으로 자리 잡도록 해야 할 것이다.